

# 침체된 골목상권 민·관이 함께 돌파

“코로나 여파로 장사가 안돼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컸는데, 이렇게 가게를 찾아 주니 숨통이 쫓이는 듯합니다”

지난 17일 낮 12시에 점심시간을 맞은 광주시 광산구 하남2지구 외식업체 ‘김가네 들술주어탕’은 모처럼 손님이 북적였다.

이 가게 김봉은 사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손님이 많다”며 활짝 웃었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확진자의 연이은 완치 소식까지 잇따르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이날 올 겨울 첫 폭설을 뚫고 가게를 찾아온 손님 중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20여명의 공무원도 있었는데, 식사 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같은 시간 광산구 경제문화국과 기획관리실·홍보실 직원은 하남2지구 음식점과 운남동 골목식당 등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행복 더하기 외식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행복 더하기 외식데이’를 통해 구청 구내식당 운영규모를 줄이고, 일주일에 1회씩 공직자들이 돌아가며 광산구 곳곳의 골목상권에 찾아가 점심을 먹

광산구, ‘외식데이’ ‘특례보증’ 등 골목상권 상인 지원 상인들도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자체 소독 나서



광주시 광산구청 직원들이 지난 17일 지역 내 골목식당을 찾아 행복더하기 외식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도록 하고 있다. 외식데이에 나선 광산구 공직자들은 방문 식당 등에서 애로사항도 청취한 뒤 행정 업무 등에 반영하고 있다. 골목상권 상인들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하남2지구상인회에서 가게 곳곳에 소독여부 체크리스트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나섰다. 상인회는 또 광산구에서 지원받은 소독제로 매일 상가 안팎을 소독하고, 가게 입구에 ‘코로나19 안심상가’ 스티커 붙여 놓는 등 지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광산구와 어룡동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선운지구 상가 일대를 방역소독했으며, 월곡2동 산정면 영화에선 코로나19 안심 현수막을 제작해 상가 안팎에 내걸고 있다.

침체한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경제 지원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구기업주치의센터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광산구 출연금 1억원 등을 합해 총 15억원을 소상공인 대출 보증재원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광산구 관내 소상공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잦은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달말까지 지식업중앙회광산구지부와 함께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개별 점식 사용’, ‘하루 1회 가게 소독’, ‘음식 덜어먹기’ 등 다양한 위생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동구·주공,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



광주시 동구가 18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를 위해 한국도주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보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순서

가 빠른 가구 순으로 선정되며 모두 65가구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최대 457만원, 중보수(창호·난방공사) 849만원, 대보수(지붕·육설·주방개량) 1241만원이며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시, 문체부 공모 사업 대거 선정

### 도서관·박물관 ‘1관 1단’ 등 9개 ...국비 553억원 확보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53억원을 확보했다.

9개 사업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포함) ▲작은도서관 조성 ▲개관시간 연장지원 ▲U-도서관 구축 ▲독서보조기기 지원 ▲다문화서비스 등으로 국비 552억6400만원을 확보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광산구 신가도서관에 연극 동아리와 함께하는 어린

이 역할극 및 프랑스 자수를 이용한 재능 있는 지역주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5개 도서관(상록, 일곡, 장덕, 신가, 운남어린이)에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극인, 작가 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은 상무지구에 들어서는 대표도서관을 비롯해 20곳에 국비 등 1246억100만원을 투입해 도서관을 확충, 독서 환경을 개선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으로도 인문정신을 확산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 공동체 광주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접수 재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를 연기했던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장애인, 가족 및 중장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아동심리 지원, 과학실습활동, 노인 웰빙프로그램, 장애인 돌봄 등 20개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분야별로 나눠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를 연기했다.

이번에 다시 접수 받는 분야는 노인·장애인(8개), 가족역량강화(5개) 등 2개다. 아동·청소년 분야(7개) 이용 신청은 지난 신청기간에 마감됐다.

노인·장애인 분야는 20일부터 이들 간, 가족역량강화 분야는 24일부터 이들 간 접수 받으며, 미달 사업은 26일 하루동안 추가 모집한다. 모든 신청은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문화예회관 ‘무대나누기’

### 청년 예술단체 모집

광주 광산구는 “오는 28일까지 청년 예술인과 광산문화예회관 무대를 공유하는 ‘2020 광산무대나누기 프로젝트’ 하오 문화정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는 9개 청년 예술단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특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기성 ‘오월, 그리고 청년’ 공연을 준비 중인데, 이를 수행할 단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공모 장르는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 예술이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청년 예술단체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단체는 공연장 무료 대관과 공연료 지급, 홍보물 제작 지원, 문화예회관 부대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모 신청은 문화예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253)에 방문하거나 이메일(363jya0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회훼농가 돕기 ‘꽃 나눔’ 정일미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등이 지난 18일 광산구청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9개월 500~1000만원 한도, 무이자 대출
- 다주택 보유에 가중세 2.4%~4.4%로 환율 0% 지원
- 50세 이상 100만원 한도, 100% 대출
-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별 상담 센터
- 지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 센터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